탄허기념박물관 명사초청 보살사상 선양법회 ④

현실을 직시하는 뜻있는 수행자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부처님 가르침이 대중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는 뜻과 마음이 모여 천명된 것이 보살의 대승불교 선언이다.

김규칠 BBS불교방송 상임이사는 1월 27일 금강선원(원장 혜거)이 탄허기념박물관에서 개최한 '명사초청 보살사상 선양법회'에서 "매순간 문제의식을 느끼고, 자아와 피아를 넘어선 실천을 펼치는 것이 진정한 보살도"라고 강조했다.

김규칠 BBS불교방송 상임이사는 서울대 법대와 신문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쳤으며, 1971년 외무고시 합격 후 주 스리랑카 참사관과 KBS 심야토론 사회 등을 거쳐 제5대 불교방송 사장을 역임했다. 또 진흥원 감사를 거쳐 현재 상임이사직을 맡고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정리=노덕현 기자

도움을 줘도·받아도 범부, 범부처럼 살아도 깨달으면 보살

김규칠 BBS 상임이사 '현대 상황에서의 보살도적 문제 의식' 주제 강연서 열린 생각 강조

먼저 말씀드리면 현대 우리가 처한 상황은 2500년 전 상황, 일제시대, 조선시대 상황이 아닙니다.

산업화 민주화 근대화가 상당히 진전된 상황입니다. 근대화도 상당히 진전되고 탈근대화, 포스트 모던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2500년 전과 달리 지금은 인도 설산 밑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을 한국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변화 앞에 불교도 변화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불교의 형상을 띄고 담겨 있는 원래 뜻은 변화가 없을 지라도 그 형상은 달라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 전에는 새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옛 말과 법도로는 안된다는 것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이었습니다.

원래 석가모니 부처님 뜻을 살리되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것이 오늘 강연의 주제입니다.

보살도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2500년 전 생각됐던 보살도와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하는 보살도가 과연 같은 것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보살이라고 하면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고 합니다. 저는 보살을 설명하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이 맞는 말이지만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살이 위로는 진리를 구하고 아래는 중생을 구제한다는 '상구보리 하화중생', 바꿔 생각하면 보살이 어찌 위가 있으며 아래가 있겠습니까.

마치 기독교 사상처럼, 보살이 어떠한 진리와 미혹 사이에 일종의 계급처럼 있는 것, 또 중생보다 높은 곳에서 아래로 중생을 주계한다는 것이 과연 보살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함께 생각해 봅시다. 더러운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 그 더러운 것들을 치우면서 어떤 마음을 기져야 할까요. 쓰레기를 싫어해야 할까요. 좋아해야 할까요. 아니면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아야 할까요.

저는 좋아하면서 싫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들이 쓰레기

> 상구보리 하화중생이
> 보살도의 전부 아냐
> 속세에서 범부들과
> 성스러움 추구가 보살

를 싫어한다면 그것을 치우려 하지 않고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좋지도 싫지도 않는다면 목석과 같이 활기가 없을 것입니다. 참선에서는 활구와 사구를 말합니다. 사람이 목석과 같다면 그 자체로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활달 자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희로애락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살도를 얘기함에 앞서 무언가 수행을 통해 현실의 고통을 벗어나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고통을 벗어나려 하면 할수록 그 고통이 싫어집니다. 그 고통을 싫어하지 않고, 그 대상을 벗어나지 않고 초탈할 수 있는가.

보살도는 바로 이런 문제의식을 스스로 만들어 고민하는데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보살하면 남을 위하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그 안에는 각 개인의 모든 이해와 감정이 담겨있습니다. 돌아보면 자신이 남을 돕는다는 감정을 즐기고 있으며 또 그 자체로 무형의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봉사활동을 하면서 겉으로 내세우기는 다른 이를 위한다. 그 내용은 적당히 도우며 자신의 소일거리를 찾고, 그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임종이 다 돼가면 '아, 내가 진심으로 봉사해서 쌓은 공덕이 없구나' 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이 보살도 안에 섞여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마음씀을, 또 무의식까지를 항상 잘 살펴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씀을 형형하게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1700년대 유학자인 이언진을 소개한 〈나는 골목길 부처다〉란 책이 있습니다.

이언진은 "우리는 속(俗)에 있으면서도 성(聖)을 지향한다. 하지만 속에 있으니 그것을 가로지르는 행동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언진은 우리 모두는 속에 속해 성스러운 세계를 위해 정진하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영국의 데이비드 브레지어 박사는 서양철학계에서 범부 패러다임을 일으켰습니다. 범부 패러다임은 남을 돕는 것이나 내가 도움을 받는 것이나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 주는 사람이 모두 범부라는 것입니다. 범부가 범부의 사정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보살이 어떤 지도자나 우위에 선자가 돼서 누구를 돕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살은 어떤 사람일까요. 범부들과 섞여 범부처럼 행동하지만 깨달은 사람이 보살입니다.

그 깨달음은 매순간 문제의식에서 나옵니다. 모든 일에 앞서 제일 중요한 일은 무엇이고, 나중에 해결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합니다. 또 단순한 봉사활동을 넘어 사회체제를 얘기하고 토론하며 열심히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노력합니다. 학문연구를 하며 실천적인 활동을 겸하는 사람이 보살인 것입니다.

사회는 냉혹합니다. 우리는 1등 주의입니다. 1등이 아닌 자들은 살아남기 힘듭니다. 1등 주의는 효율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양극화의 문제를 낳습니다. 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뿐 생태환경적인 면에서는 비효율 문제를 낳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불교의 보살이라면 열린 생각으로 모든 대중이 머리를 맞댈 수 있게 고민해야 합니다. 남북문제를 예로 들어봅시다.

흡수통일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한반도의 문제가 굳이 흡수통일의 방식으로 1800만 북한 주민을 남한 국민이 먹여 살려야 한다는 생각은 갇힌 생각입니다.

범부 패러다임을 갖고, 보살도 정신을 갖고 진정으로 북한 주민의 사정을 이해하면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노력만이 비로소 한반도 문제를 지구촌 아젠다로 끌어올리고 모든 세계인들의 노력을 모아 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해답은 누가 얻습니까. 바로 문제의식을 가장 철저히 느끼는 사람입니다. 보살도를 걷는 사람입니다.

대한불교진흥원은 제작년부터 '세상을 위한 불교'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사회 변화의 양상에 맞추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불교의 문화주의적 접근이 모색됐습니다. 기독교 사상과 같이 절대 진리를 표방하고 대중에게 믿음을 강요하기 보다 이 세상을 함께 사는 세상, 조화와 공영을 통해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드는데

> 고통 벗어나려 할수록
> 고통스럽고 싫어진다
> 싫어함 벗어남 없이
> 초월한 이가 바로 보살

불교사상이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즉 정토 사상입니다.

지금 우리 불교도 중에서도 은연 중에 교조주의를 띈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방식대로, 또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서는 안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교는 넓은 생각으로 관용하고 포용하는데서 시작합니다. 흑백논리로 불의와 진리, 적과 동지로 나누는 것이야 말로 불교정신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더욱 확장시켜 세계인의 철학이 되도록 하는 것은 불자로서의 사명입니다. 현재 유네스코는 인류보편윤리를 마련 중이며, 유엔은 세계 빈곤 및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철학적 기반을 찾고 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인류의 문제 해결 철학을 한국에서 일으켜 준다면 유엔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아프리카 난민 등을 구제하는 일에 앞서 그 밑바탕이 되는 철학이 마련돼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외교의 귀재 헨리 키신저도 철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외교도 철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키신저는 "부분적인 이익에 의해 입장이 계속 변한다면 그 원동력이 사라져 외교적 노력이 결국 수포로 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불교계가 현재 처한 상황과도 매우 밀접합니다. 철학이 있다면 여러 종교와의 관계, 정부와의 관계에서 굳이 소신공양을 하고 강경한 어조로 발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불교의 저런 분들이 일갈을 한다면 우리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겠구나. 잘 모셔야 겠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게 해야 합니다.

불교 내부적으로 시대를 내다보는 긴 기조를 가지고 밖으로는 사회에 철학적 뒷받침을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의 불교사상과 현대 사회현상을 결부시켜 새로운 논리와 이론을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보살도입니다.

부처님은 따로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 전체 생명의 마음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모든 행위에 앞서 이 행위가 나를 위함과 동시에 우리 이웃을 위하고 또 모든 생명을 위한다는 마음을 가지면, 즉 공심(共心)을 가진다면 그 자체로 활달자재해 질 것입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대아(大我) 조차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보살도가 우리사회의 산적한 여러 문제들의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2011학년도 동학사승가대학
추가 신입 • 편입생 모집

동학사승가대학에서는 2011학년도 추가 신입 •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 모집대상 : 사미니계 수지자 (40기 수계자 포함, 비구니 가능)
타 승가대학인 경우 1년이상 휴학한 스님

◐ 제출서류
(1)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1통
(2) 주민등록증 양면복사 1통
(3) 은사스님 추천서 1통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5) 증명사진 2매

◐ 입방날짜 : 2011년 3월 10일 4시까지

◐ 문 의 처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789번지 동학사 종무소
전 화 : 042) 825-2570, 팩 스 : 042) 825-6068

◐ 교 통 편
고속버스 이용 시 : 유성시외버스터미널에서 107번 버스 이용 → 종점 하차.
기차 이용 시 : 대전역에서 107번 버스 이용 → 종점 하차.
동학사 입구 차량통제소 앞에서 오후 2시부터 운행하는 동학사 차량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동학사승가대학 주지 견성 • 선덕 해주 • 학장 법성

대반열반경 강의안내
(大般涅槃經)

원조 각성 강백 큰스님 직강
40권. 북량(北凉) 시대(A.D. 414~421) 번역. [역] 담무참(曇無讖)

부처님의 열반에 대해서 기록하고 여래의 법신은 상주 불변하는 것이며, 일체 모든 중생이 다 불성(佛性)을 가지고 있다는 대승 사상의 정수가 들어 있는 경으로서 가장 널리 읽히는 경전 중의 하나이다. 특히 대승 5대 부문으로 꼽히는 화엄부, 방등부, 반야부, 법화부, 열반부 중에서 열반부를 대표하는 경전이 바로 북본 열반경이다.

각성큰스님께서는 이번 열반경 강의가 일생 마지막 마무리 한다는 소신의 뜻이 담겨져 있어 더욱 귀한 자리입니다. 여러 대중스님들에게 마지막 좋은 기해라 봅니다.

그동안 10년여 동안 각성큰스님의 경전강좌를 통해서 전강생 23명 스님을 배출하였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교육의 기회를 갖을 예정입니다.

수행과 포교현장에서 치열하게 노력하시는 스님과 불교학자들에게는 자기완성과 대중교화에 커다란 지침이 될 것입니다.

강의일시 | 2011년 3월 15일(화)부터 ~
강의시간 | 매월 첫째, 셋째주 화요일 오후 2시
강의장소 | 동국대학교 학명 세미나실
수 강 료 | 무료
기 간 | 2년간
경 비 | 1년간 백이십만원
내용(열반경40권, 운영비, 해외학술세미나 1회 포함)
대 상 | 비구, 비구니
자 격 | 법납 15년이상 동국대 재학생 및 졸업자스님
서울불교전문강당 졸업자 및 재학생스님
승가대학 재학생 및 졸업자 그 외 동등한 스님에 한함.
구비서류 | 수행이력서 1부
접수기간 | 2011년 2월 10일부터 3월 13일까지
입금계좌 | 국민은행 390401-04-043930(예금주:최재동)
문 의 | 010-4242-7070(연구소장 법경)
010-5497-8018(연구위원 용화)
011-520-9350(연구위원 도행)
접 수 처 | 경기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20-26번지 좋은절

주최 | 동국대학교 정각원 주관 | 통화불교 전강원